

로버트 치죐 박사, 이사야의 종의 노래, 세션 2: 주님의 종: 정의의 옹호자이자 언약 중재자(B) (이사야 42:1-9 [계속] 및 49:1-3)

로버트 치죐 박사님의 이사야 종의 노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부, 주님의 종, 정의의 투사, 언약의 중재자, B부입니다. 이사야 42장 1-9절과 49장 1-3절이 계속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몇 가지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 시편, 혹은 노래가 메시아적으로 성취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 노트에서 제대로 된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메시아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의 시므온부터 시작해 봅시다.

시므온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연로한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빛이 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선포했습니다. 혹시 떠오르시나요?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빛이 될 아기 예수님 말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빛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종이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장 6 절도 그 두 시편이나 노래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종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므온의 말을 듣고 계셨나요? 그는 종의 노래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노래를 완성하실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의 세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정복하는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정복자나 심지어 당나귀처럼 왕권을 암시하는 말이나 백마 같은 것을 타고 오시는 대신, 세례를 받으려

줄을 서셨습니다. 마치 정결케 되어야 할 회개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려 줄을 서셨습니다.

그러자 존이 항의했습니다. “나도 그랬을 거야.” “아니, 세례 안 줄 거야. 너한테 세례 줄 필요 없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여기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53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일시되시며, 고난받는 종으로서 인간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러 오셨지만(마태복음 8:17),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마태복음 20:28), 새 언약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마태복음 26:28). 이 잔은 새 언약의 잔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의를 이루도록 강요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도덕적 지시에 순종할 때, 당신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런 방식으로 죄인들과 동일시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이는 궁극적인 구속의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의 사역의 첫 단계였으며, 후에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세례가 진행되면서,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도 네 번째 종의 노래와 더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일시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예수님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식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요 ,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시편 2편 7절에서 다윗 왕을 그의 아들로 선포하신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종을 기뻐하시는 첫 번째 종의 노래의 첫 구절을 합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이사야 42:1,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이 "그의 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행하고 고난을 겪을 그분의 특별한 종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왕권이라는 주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본문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처음부터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다면, "아, 여기서 점들을 연결해 보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주님께서 그를 기뻐 하신 다고 선포하셨는데 , 시편 2편, 즉 왕의 시편과 연관 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의 시편이죠.

그래서 왕권과 섬김의 관계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기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왕국이 가까왔다고 선포하시면서 메시아적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심으로써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을 보이셨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이러한 질병이 종종 마귀에게서 온다고 여겼습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에게서 온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질병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고 죽습니다.

인류 의 일부입니다 .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악령 들린 자들을 고치심으로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

그들은 분명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의 메시아적 능력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서 백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마카비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은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9장에서처럼

메시아를 군사적 전사로 부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치유 사역을 통해 끔찍한 곤경에 처한 죄인들과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물리칠 수 있음 을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원수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질병은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하신 사람들의 삶에서 죄의 영향을 없애심으로써,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접근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날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살았던 시리아와 데가볼리 같은 두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이사야 53장과 비슷한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미 전파되고 있고, 이방인들이 그분을 알게 되었으며, 그분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언급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예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배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성들도 배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배제되지 않을 겁니다. 이방인들도 배제되지 않을 겁니다. 2류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문화에서 조금 덜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노트에서, 다음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 61장은 종의 노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를 56장부터 66장까지로 구분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와, 61장이 처음 두 종의 노래와 아주 비슷하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종의 노래일 수는 없죠. 예언서에 나오는 노래인데, 왕의 노래라는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이번 강의 마지막, 네 번째 강의 마지막에 이사야 61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61장에 묘사된 분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과 42장, 49장, 심지어 11장까지도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록 거기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두 장의 연결 고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 논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에서 물러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이루셔야 할 일이 많으셨기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박해에 직면하여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쳐 주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가 메시아이고 이미 오셨으며 자신이 말하는 그 분이라면,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종 송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깨어진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즉 희미해져 꺼질 준비가 된 심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실 겁니다. 그분은 그 비유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큰 연민을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 홍보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복왕으로 자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짓밟고 억압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사명은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변형,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일부가 죽기 전에 당신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직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문자적인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리 보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그중 몇 가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그분 말씀이 성취된 것일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세례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리고 변화산에서 말씀하실 때도, 다시 한번, 시편 2편 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 왕이시고, 42편 1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종을 기뻐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메시아적 왕으로 밝히시고, 종의 시편에서 그를 종으로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왕권, 왕권, 그리고 종의 신분을 어떻게 하나로 묶으시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노래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이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누가복음 9:35). 어떤 누가복음 사본들은 마태복음과 본문이 일치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개 다른 사본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자료를 필사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내용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본문이 독창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주님께서 그 종을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택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기쁘다' (well-ple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선택되었다' (choose)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마태 복음서는 하나를, 누가 복음서는 다른 하나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마태는 두 가지를 선택했고, 누가는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선택했지만, 두 가지 모두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신약 성경에서 매우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주님께서 정의의 투사이자 이상적인 왕으로서 종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노래입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이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두 번째 노래의 다음 종의 노래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성경 좀 가져오시겠어요? 49장으로 가 볼까요? 49장의 노래는 13절까지 이어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꽤 많은 유사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본 것과 정확히 같을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는 서로 잘 어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여러 면에서 그 언어의 정체성과 일부 언어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49페이지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49.1페이지인데, 방금 뭔가 생각났어요.

제가 다루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 하인의 노래가 42장인데, 그다음 일곱 장을 건너뛰어 49장으로 넘어가고, 세 번째 노래가 50장에 바로 나오고, 네 번째 노래가 52장에서 53장에 빠르게 연달아 나오죠.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음,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강조되어 있을까요?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우리가 언급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41장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사자 고레스에 대해 말씀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과 고레스가 정복자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 종은 고레스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종은 그런 식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로 넘어가서, 그는 실제로 그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 패턴을 이해하시죠? 우리는 고레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 계획을 시작할 더 즉각적인 사건인 고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계획을 결실을 맺고 정점에 이르게 할 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고레스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고레스의 이야기는 44장과 45장에서 정점에 도달하는데, 고레스가 등장하여 백성을 포로에서 구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에서 볼 수 있는 장대한 비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그는 자신의 다른 구원자, 곧 이 모든 것을 완성할 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은 그 종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해, 그 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고레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그 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패턴을 보시나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공백이 있었던 겁니다. 자, 49장 1절, “해안 지방들아, 내 말 을 들으라 . 멀리 사는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인입니다. 그는 말하고 있고, 그는 해안 지역과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살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 우리는 이미 42장에서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 열방에 영향을 미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태어날 때부터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세상에 데려오셨을 때, 주님께서 저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주님의 종이 되는 한 가지 사명을 염두에 두고 오셨다는 뜻이겠죠. 2절은 마치 그분이 어떤 종류의 군인이 되실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그분의 손 안에 숨기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고, 그분의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는 내 종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고 “주님의 종에게는 군사적인 면이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메시아는 강력한 전사로 오실 것이고, 이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말을 타고 오실 것이고, 입에서 검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종의 노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사이시지만, 종의 노래는 죄인들과의 동일시와 겸손, 그리고 비참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향한 그의 사역, 그리고 그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이러한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날카롭게 한 화살과 같이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나는 주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언적 차원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분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왕이거나 선지자일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이 종은 여러 직분을 맡았고, 주님의 대변자도 될 거야.

그는 주님의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예언적인 말씀을 할 것이며, 그 말씀은 마치 전사의 손에 칼이나 화살이 있는 것처럼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숙련된 전사의 손에 무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실 때 종의 말도 효과적이고 강력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그를 강력한 예언자로 묘사하는 거죠. 물론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포하면 심판이 옵니다.

그들의 말은 파괴적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논쟁합니다. 가르치려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은 종이잖아."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라고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세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 유배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항상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헛수고를 했어. 내 힘을 허비했어.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거야.'

이상하네요. 그는 아마도 반대, 어쩌면 어떤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저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네 번째 노래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반대가 있을 것이고, 종의 수고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의 종으로 만드신 이가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 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야곱을 당신께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이 그분께 모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요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개팔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 그분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종으로 만드셨고, 나는 이스라엘로 식별됩니다.

제 임무는 야곱을 회복하는 것이고, 제 임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히브리어 문법에 이상한 것들을 시도해 왔는데, 제가 쓴 글들을 찾아보시면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발표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전문적이긴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즉, 종 이스라엘이 야곱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에서 야곱 이스라엘이 쫓겨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유배되었습니까? 귀머거리이고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의 임무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실 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그분 자신이 그 본보기가 되십니다. 그분은 그들과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동일시하며,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죄악에 공감한다."

제가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지만,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주님의 사명은 그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상적인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스라엘을 대체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신중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대체 신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것을 성취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 이것은 호세아의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에 따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우상, 곧 바알을 더욱 쫓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최초의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는데, 아들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우상과 바알을 따르기 시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특히 그 땅에 도착한 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적이며, 어떻게 예언적일 수 있을까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모형론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성취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인 성취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더욱 완전한 의미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 하시는 일은, 제 생각에 주님께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며,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분은 마귀와 맞섰고, 마귀는 실제로 그분을 유혹하여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고통의 차원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이봐, 내 말대로만 하면 지금 당장 내 밑에서 왕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은 신명기를 계속 인용하시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제 DTS 동료 중 한 분인 고(故) 하워드 헨드릭스는 이 유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신명기만 가지고 있다면 마귀를 얼마나 잘 대적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가 신명기에서 인용한 구절들은 모두 광야에서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즉 불순종하는 하나님과 대조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광야에서 성공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것임을 증명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율법을 지키면, 열방이 당신을 보고 " 뭐라고?"라고 말할 것입니다. 현명한 법을 가진 현명한 백성이 있으니, 그들은 당신이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에게 야훼를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망쳤어.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 그 종이 해낼 거야.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지를 열방에 전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는 야곱,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는 말한다. " 네가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 이냐 ?" 또다시 그것이 그의 임무다. 그러므로 그는 포로된 이스라엘과 구별된다.

그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 것입니다. 열방에게 . 네, 그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구원을 땅의 먼 곳까지 전할 수 있다. 이스라엘만 섬기는 것이 너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는 시편 1편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더 넓은 사명이 이제 여기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며 그들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으로, 열국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종, 통치자들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왕들은 보고 존경하며 일어설 것입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를 택하셨으므로, 방백들이 엎드려질 것이다. 이는 멸시받고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또 다른 암시, 아니 그 이상의 의미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읽을 종의 노래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노래들은 고통받는 종에게 완전히 초점을 맞춘다.

그분은 우리를 그 일에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민족들이 당신을 멸시하고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 사람들은 당신을 배척했고 당신은 통치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과 빌라도의 손에 어떻게 놓이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열국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왕들은 이를 보고 존경하며 일어설 것이며, 통치자들은 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왕들이 그분이 우리보다 더 크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더 크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백성의 언약의 중재자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노래에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 즉 백성이 땅을 재건하고 황폐한 땅을 다시 분배할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맥락에서, 제 생각에는 백성은 야곱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추방된 이스라엘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셔서 황폐해진 땅을 재분배하실 것입니다. 이는 좀 더 집중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반대하는 것은 이 내용을 42장에 적용하는 것인데, 42장은 이보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백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2절에서 이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여기서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야곱을 위한 언약의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사역을 시작할 것이며, 자신의 고난을 통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언약 중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노래를 따라가면서 종의 고난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사야 55장에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사실, 그 구절 몇 개만 읽어 볼까요? 언약 갱신에 대한 부르심인데, 종의 노래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여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감탄사. 호이,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야,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오너라.

돈 없는 자들아, 와서 사서 먹으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다 공짜다.

영양분도 안 되는 것에 왜 돈을 내야 합니까? 비유가 좀 모호합니다. 공짜냐 사느냐,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잘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들으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했던 믿음직한 언약처럼, 너에게도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은 언약의 갱신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 보라, 내가 다윗을 열방의 증인으로, 열방의 통치자와 명령자로 세웠다. "

보라,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민족들을 불러 모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전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이것은 인용문이지만, 종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다. 전에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네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네게로 달려올 것이니, 이는 그가 네게 영광을 베푸심이니라.

그리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님 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십시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 죄 많은 자들은 그들의 계획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이는 종의 노래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종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 내 계획은 너희 계획과 다르며 내 행위는 너희 행위와 다르다. "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행위는 너희 행위보다 높고 내 계획은 너희 계획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불가해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문맥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계획은 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계획이 죄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죄악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가해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하는 약속입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겠어. 넌 그럴 리가 없지. 네 계획은 실패할 테지만, 내 계획은 네 계획보다 훨씬 더 강력해.

그리고 그는 비와 눈이 내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비와 눈은 본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다시 내리지 않고, 그것이 전도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내가 약속을 보낼 때, 그것은 비나 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멈춰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서 제가 보낸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는 새 언약의 체결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스겔도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사야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사야 53장과 종의 고난, 그리고 두 번째 종의 노래에 담긴 새 언약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종의 노래로 돌아가 보면, 그는 백성을 위한 언약의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새 언약을 중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55년에 여러분은 그 언약을 갱신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땅을 재건하고 황폐해진 땅을 다시 분배하실 것입니다.

너는 갇힌 자들에게 "나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나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길가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모든 경사지에서 그들은 목초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베푸는 자에게는 그들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물샘으로 인도할 것이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물샘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있을 것이며, 그는 일종의 예언적 인물이 될 것입니다.

휴젠버거 라는 학자가 이 주제에 대해 정말 훌륭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주님의 종은 새로운 모세입니다.

다음 51장에서 새로운 엑소더스가 묘사될 겁니다. 엑소더스가 있다면 모세도 있겠죠. 엑소더스 영화를 봤다면 찰턴 헤스턴은 꼭 출연해야죠.

그러니까, 그 좋은 새로운 모세가 될 거야. 백성을 인도해 낼 거고. 내가 내 모든 산을 길로 만들 거야.

내가 내 길을 닦으리라. 보라, 저들은 멀리서 온다. 보라, 어떤 자들은 북서쪽에서 오고, 어떤 자들은 시나이 땅에서 온다.

이번에는 이집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저기서, 그리고 사방에서 올 것입니다. 하늘아, 기뻐 외쳐라.

땅아, 기뻐하라. 산들은 즐거이 외쳐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그 땅으로 인도할 모세가 있을 겁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단순히 새로운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고, 땅을 다시 분배하고, 재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곳곳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종이 할 일입니다. 그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예로 들어보면, 여호수아는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 을 가져오고 , 그의 백성에게 정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을 받아 왔습니다.

이 두 번째 노래에서 하인이 맡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세나 왕이라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들 이죠 . 예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네, 저는 선지자를 봅니다. 와, 선지자를 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순한 선지자 이상의 분이십니다. 저는 메시아적 왕도 봅니다 .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종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세 번째 종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래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로버트 치즈 박사님의 이사야 종의 노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세션, 주님의 종, 정의의 투사, 언약의 중재자, B 파트입니다. 이사야 42장 1-9절은 계속되고, 49장 1-3절은 계속됩니다.